

KIA, 이렇게만 가자

호투 김진우, 3게임만에 '첫 승'
나지완·신종길 등 타선 집중력
7-5 롯데 잡고 '워닝시리즈'



돌아온 김진우가 세 번째 출격 만에 시즌 첫 승을 신고했다. KIA 타이거즈가 25일 울산문수야구장에서 열린 롯데 자이언츠와의 경기에서 7-5 승리를 거두며 2연승에 성공했다. 부상 복귀 후 세 번째 등판에 나선 김진우는 6이닝 5피안타 2사사구 4탈삼진 3실점(2자책)을 기록하며 승리투수가 됐다.

KIA가 롯데 선발 배장호를 일찍 마운드에서 끌어내리며 기선제압에 성공했다.

KIA가 1회부터 이종환의 좌전안타와 신종길의 중견수 키를 넘기는 2루타로 1사 2·3루의 기회를 잡았다. 나지완이 좌전안타로 주자를 모두 홈으로 불러들이며 4번 타자 역할을 했다.

2회에는 상대의 실수가 이어졌다. 선두타자 안치홍이 좌익수 플라이로 물러나는 것 같았지만 롯데 김대우의 글러브가 공에 미치지 못하면서 행운의 2루타가 됐다. 김주형의 번트 때는 투수 배장호가 3루 승부를 선택했지만 세이프가 선언되면서 야수선택이 기록됐다. 무사 1·3루에서 차일복

의 적시타가 나오면서 3-0. 롯데가 이상화로 투수를 교체했지만 KIA가 1사 2·3루에서 폭투로 다시 손쉽게 1점을 보였다.

3회에는 나지완의 솔로포가 터졌고, 5-1로 앞선 5회에는 선두타자로 나온 김대우의 안타가 공격의 물꼬를 텄다. 2사에서 1·3루에서 안치홍과 김주형의 적시타가 이어지면서 점수는 7-1까지 벌어졌다.

일방적인 초반 흐름에 비해 중반 이후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승리까지 가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다.

3회 1사에서 패스트볼과 3루수 이범호의 실책성 플레이로 1점을 내줬던 김진우가 6회 다시 실점 위기를 맞았다. 1사에서 손아섭을 좌전안타로 출루시킨 뒤 히메네스에게 1타점 2루타를 얻어맞았다. 박종운에게 연속해서 2루타를 맞으며 점수는 7-3까지 좁혀졌다.

7회 김태영이 출격해 탈삼진 하나 포함 삼자범퇴로 이닝을 막은 뒤 심동섭이 마운드를 물러났다. 심동섭은 대타 전준우를 2루수 망블로 잡아냈지만 손아섭에게 볼넷을 허용했다. 히메네스와의 승부에서 볼 2개를 연달아 던진 심동섭이 왼쪽 팔뚝 근육통으로 강판되면서 분위기가 다급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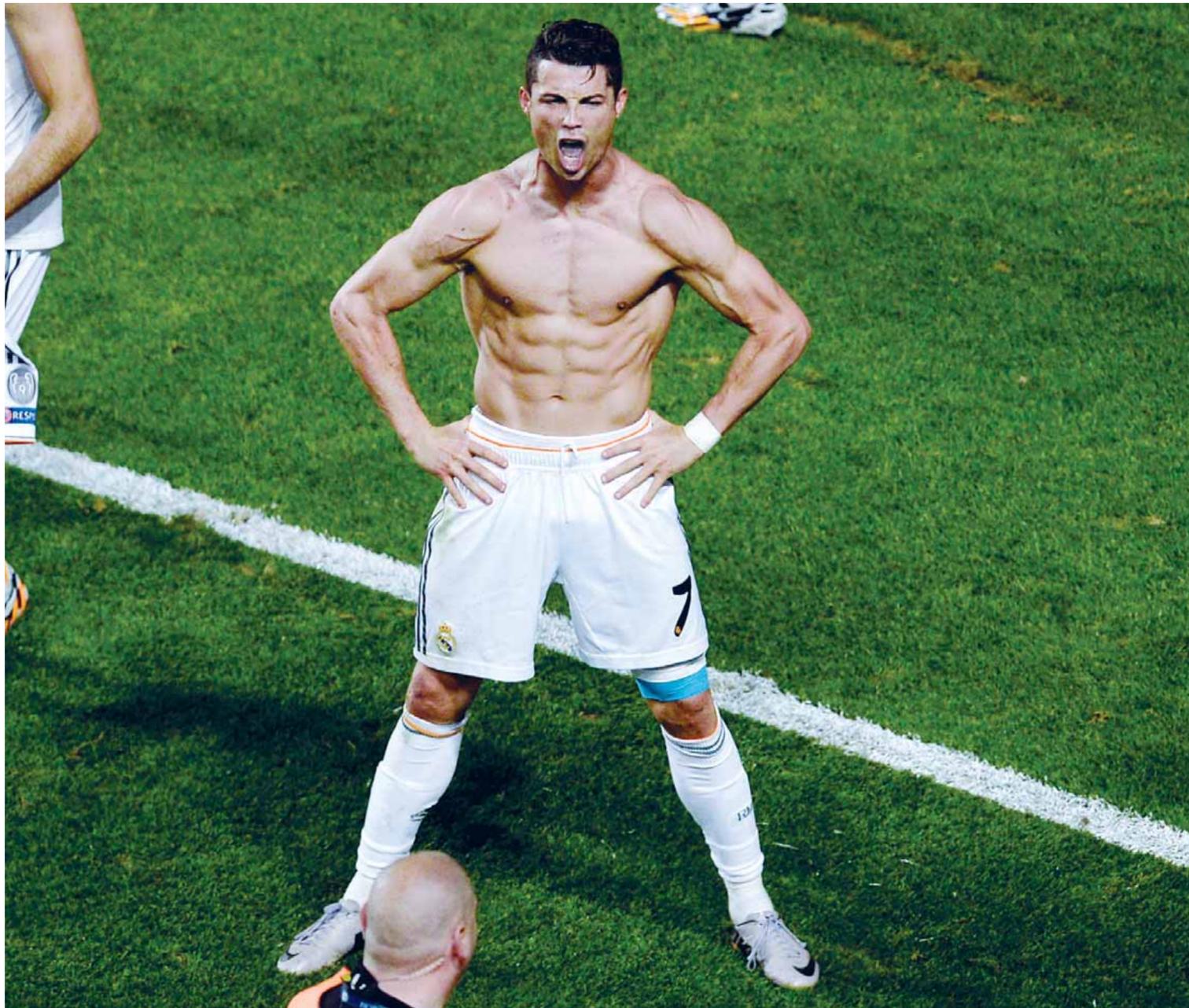
지난 23일 최고의 피칭을 선보였던 신창호가 급히 투입됐지만 히메네스의 타구가 중앙 담장을 넘어가면서 7-5가 됐다. 신창호가 추가 실점없이 투아웃을 잡아내자 9회 마무리 어센시오가 투입됐다. 임종혁과 용덕현의 방망이를 헛돌게 한 어센시오는 대타 최준석도 조구에 우익수 플라이로 처리하며 세이브를 쟁겼다. /김여울기자 wool@



25일 울산 문수야구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와 KIA 타이거즈의 경기에서 KIA 선발 김진우가 역투하고 있다. /연합뉴스

'라 데시마' 레알

〈UEFA 챔피언스리그 10회 우승〉



"내가 챔피언" 24일(현지시간) 포르투갈 리스본의 2013-2014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연장 전 끝에 4-1로 물리친, 레알 마드리드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웃음을 베푼 채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틀레티코에 연장 끝 4-1 승
17골 호날두 '득점왕'...통산 2위

스페인 프로축구 '명가' 레알 마드리드가 팀 역사상 10번째 유럽 축구 정상 달성에 성공했다. 레알 마드리드는 25일(한국시간) 포르투갈 리스본의 에스타디오 다 루즈에서 열린 2013-2014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120분 연장 혈투 끝에 4-1로 눌렀다.

이로써 UEFA 챔피언스리그 최다 우승팀인 레알 마드리드는 2001-2002시즌 이후 12년 만에 통산 10번째 우승컵을 차지해 '라 데시마'(La Decima·스페인어로 10번째라는 뜻)를 달성했다. 또 코파 델 레이(국왕컵)에 이어 '빅이어'(챔피언스리그 우승컵)까지 따내 이번 시즌 '더블'을 이뤘다.

카를로 안첼로티 감독은 레알 마드리드 사령탑에 오른 첫 시즌에 개인 통산 3번째 챔피언스리그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지금까지 챔피언스리그에서 3차례 우승한 감독은 리버풀을 이끌었던 밥 페이즐리(잉글랜드) 감독이 유일하다.

더불어 연장 후반 종료 직전 페널티킥으로 마무리골을 터트린 호날두는 이번 시즌 UEFA 챔피언스리그에서 17골을 작성, 한 시즌 최다골 기록으로 득점왕에 올랐다.

1974년 이후 40년 만에 두 번째로 이 대회 결승에 오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선제골을 터뜨렸지만 마지막 한순간의 방심 때문에 유럽 정상에 오를 절호의 기회를 날렸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전반 36분 수비수 디에구 고딘이 코너킥 상황에서 헤딩 선제골을 넣어 먼저 앞서나갔다. 레알 마드리드의 베테랑 골키퍼 이케르 카시야스의 잘못된 위치 선정 때문에 따낸 행운의 골이었다.

그러나 경기 종료 직전인 후반 48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세트피스 수비에 실패해 승부는 연장전으로 접어들었다.

승부는 후반에 갈렸다.

연장 후반 5분 레알 마드리드의 앙헬 디 마리아가 질풍 같은 왼쪽 측면 돌파 뒤 페널티지역 근처에서 수비수 2명을 제치고 왼발 슈팅을 날렸다. 볼은 골키퍼 티부 쿠르투와의 발을 맞고 튀어 올랐고, 골 지역 오른쪽으로 쇄도하던 가레스 베일이 머리로 받아 결승골을 뽑았다.

특히 이번 시즌 프리메라리가 득점왕(31골)에 빛나는 호날두는 UEFA 챔피언스리그에서 만 역대 통산 68골을 작성, 리오넬 메시(통산 67골)를 밀어내고 라울 곤살레스(71골)에 이어 역대 UEFA 챔피언스리그 통산 득점 2위에 올랐다. /연합뉴스